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안내

배우고 익혀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는 행복한
학교

군산신흥초등학교는 교육부의 2023.9.1 기준 생활지도고시안 시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2023.8.17.)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신흥초등학교에서도 교육부 고시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우리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 9. 1. 시행)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갖추었다.

군산신흥초등학교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되고, 교권 확립을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생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9. 6.

군 산 신흥 초 등 학 교 장